



'광주 센서리움: 미디어아트'전이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오는 12월 5일까지 열린다.

# 비시각적 정보와 결합한 시각예술

전시실에 들어서면 어디서든 들려오는 물소리를 듣게 된다. 입구에 설치된 미디어 작품은 두 개의 화면으로 분할돼 있다. 하나는 시끄러운 물소리라, 다른 하나에선 맑고 힘찬 물소리가 흘러나온다.

시끄러운 소리는 쇼파카트에 담긴 모니터를 통해서 전달된다. 지구 배경의 화면에서 송출되기에 관객은 훼손된 자연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시끄러운 물소리는 피해한 자연이 내는 '아우성'을 기호화했다. 이에 비해 힘찬 물줄기는 깨끗하고 덜 오염된 자연을 상징한다. 소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저 그런 자연 풍경을 관심의 대상으로 만든다. 보는 이의 고민을 가중하면서 흥미로운 미학적 대상으로 변화시킨다."

김일권 작가(전남대 미대 교수)는 '고장난 자연'이라는 작품에 대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자연이 훼손되어 있는지 환기한다고 했다. 작가가 소리가 발하는 울림과 아우성을 깊이 있게 탐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 센서리움:미디어아트'전이 열리고 있는 무등현대미술관. 전시실에는 영상, 설치, 디지털 매체 등을 활용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관객을 맞고 있다.

오는 12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김일권 작가와 고통연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4 감독이 공동 기획했다. 이미지의 다양한 변환을 만들어내는 인터랙티브 작업은 다 장르적 작업을 아우른다.

참여 작가로는 김일권, 김혜란, 송은성, 심승욱, 안종연, 오창근, 한승구 등 모두 7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원래 센서리움은 뇌의 피질에 존재하는 각기 다른 감각의 중추를 말한다. 인간의 뇌에는 서로 다른 감각을 인지하는 부위가 널리 퍼져 있다. 주제

'광주 센서리움:미디어아트'전 12월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김일권·송은성·안종연 등 7명

'센서리움'은 서로 다른 감각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시각, 소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작품들로 구성돼 있어 관객들은 공감각적, 다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

고통연 감독은 "인간의 감각과 시간이라는 오래

된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쟁점을 다루고 있는 미디어 아트의 현주소를 조망하고자 기획했다"며 "동시대 예술가들이 시각적 정보의 파장을 움직임이나 리듬감 등 비시각적 정보와 결합하고 전이하는 과정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각각의 작품들은 반복되는 아이디어와 디지털 매체의 결합을 매개로 구현되고 있다.

김혜란 작가의 '스토리 오브제'는 스토리의 생성, 이미지화를 매개로 가상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오창근의 'TEMPER II'는 분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식 등을 주목했다. 작가는 빠르게 변화하는 한편 독립적인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심승욱의 '그날의 기억'은 자신이 쓴 시를 글자와 글자가 섞이면서 희미하게 사라지는 영상을 화면에 구현한 것이다. 김효경 학에서는 "작품은 시간과 기억이 맞물려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좋은 기억을 떠올리려 할 때 반대의 기억들이 간섭해 왜곡되는 현상을 풀어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종연 작가의 '달리는 사람'은 우주 만물 에너지의 근원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한승구 작가의 '화성행궁, 달빛에 꽃피다'는 달과 이미지를 통해 상흔을 이야기한다. 특히 'MIRROR MASK'는 사람의 얼굴에 거울이 설치돼 있는 이색적인 작품이다. 관객들은 자신을 대입함으로써 거울이 반사하는 효과를 사유할 수 있다.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표현한 작품도 있다. 송은성 작가의 'chasm'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그것을 사용하기까지의 간극을 뜻하는 시기를 구현한 것이다. 기능과 사람 사이의 간극에 담긴 철학적 사유가 깊고 이색적이다.

/글:시진·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일권 작 '고장난 자연'

## '행복한 동행-그대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해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및 휠체어 사용자들을 위한 좌석 제공 등 장애인 관객들의 공연 접근성을 높인 '배리어 프리'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정찬훈)가 '제3회 행복한 동행-그대들을 위한 힐링 콘서트'를 13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선보인다. TV조선 미스트롯2 출신 은가은, JTBC 풍류대장에 출연했던 임재현을 비롯해 잭팟크루, 더원밴드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이 관객들을 만난다.

남구장애인복지관 소속 광주그린오케스트라를 비롯해 광주시각장애인복지관 소속 더원밴드 등이 출연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사한다.

플루티스트 백영경, 국악인 임재현과 트로트 가수 은가은 등도 출연할 예정이다. 이외 전자클래식 리브어스 앙상블, 댄스그룹 잭팟크루 등이 저마다 레퍼토리로 가을밤 공연장을 수놓는다.



트로트 가수 '은가은' (왼쪽)과 '잭팟 크루'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제공>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근로생활을 위해 노무·법률교육, 상담, 문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찬훈 센터장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

광주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번 공연은, '배리어 프리' 형식으로 구성해 누구나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자유로운 객석이동 허용, 음성해설 및 수어 통역 제공 등 요소가 공연관람 장벽을 낮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석 무료, 유선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는 선물같은 위로

극단 판청 '일곱 번째 판짓'...16~17일 서빛마루 문예회관



판청의 지난 '여섯 번째 판짓' 공연 장면.

<판청 제공>

병원에 머물던 환자들이 서로를 위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극 '뮤지컬' 형식으로 탄생했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극단 문화공동체 판청(대표 김유경·판청)이 공연을 펼친다. 오는 16~17일 각각 오후 3시, 7시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일곱 번째 판짓'으로 기획했다.

2012년 대학로 예술마당에서 선보였던 작품으로, 병원에 모인 소시민의 연대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만남이 달콤한만은 아니듯 이별이 아픈만은 아니죠/ 사랑에 머물 수는 있어도/ 절대로 갇히면 안 돼요"("닥터 리의 하소연" 중)

주요 넘버로 '없네 없어', '버림받은 이들의 노래'를 비롯해 '길레의 사랑', '베드로의 마음' 등이 울려 퍼진다. 연출은 이영생이 맡았으며 최병호 역에 이의준·정인호, 닥터리 역에 조현근·이영생

이 출연한다. 이의 베드로(한소명), 이길레(권소현·김유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들 대부분은 광주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2~30대 대학생, 직장인으로 구성됐다.

뮤지컬을 사랑하는 지역 청년이 2008년 모여 만든 '문화공동체 판청'은 다 같이 모여 예술이라는 '판짓'을 한다는 취지에서 결성됐다. 작년과 올해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오월뮤지컬 '비망'을 선보인 바 있다.

판청 김유경 대표는 "연말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공연을 준비했다"며 "소중한 사람들의 기억을 돌아볼 수 있는 '연말 선물' 같은 공연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무료 공연. 판청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소수자 목소리 담은 '광주여성영화제' 폐막

심이안 감독 '뺨고' 권 작품상

성평등 문화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한 '제15회 광주여성영화제'가 지난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광주극장 및 CGV 광주금남로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영화제는 세계 9개국 50편 영화를 선보였으며 3000여 명 관객이 함께했다.

폐막식에서는 '권 단편경선'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권 작품상은 심이안 감독의 '뺨고', 특별상은 최승현 감독의 '영아의 삶'에 돌아갔으며 관객상은 임지선 작 '헐젤:두 개의 교복치마'가 받았다. 폐막작으로 민아영 감독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가 상영됐다.

광주 아시아여성영화제의 비전을 잇는 신설 섹션 '플래시 아시아'는 행사기간 내 호응을 얻었다. 여성영상집단 움의 홍순인 프로듀서가 객원 그래머로 참여, 아시아의 과거-미래사를 조망하는 작품 '페르세폴리스', '플래시 75', '가버나움' 등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시의적 이슈를 영화로 초점화한 '포커스 토크' 코너도 주목받았다. '원래

그런 건 없어: 담페이크 성범죄 추적기', '기억과 기록: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주제로 각각 담페이크 문제, 원폭피해와 위안부 문제 등을 다뤘다.

광주여성영화제 운영위원회 김재희 집행위원장은 "함께 모여 손을 맞잡을 때 비로소 '여성영화제'가 의미를 더할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며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 지역 영화인들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바로잡습니다

광주일보 11월 5일자 11면 '글과 공명하는 한강 퍼포먼스 아트...그래서 더 큰 울림' 기사 중 '한강의 퍼포먼스 영상 작품'을 '한강의 퍼포먼스 작품'으로 바로잡습니다. 한강 작가는 퍼포먼스를 창작했고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은 최진혁 작가입니다.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